



◇동대의료원 불교회원들이 스님들을 진료하고 있다.

스님·종무원 400명 진료

동국대 3개병원 불교회

‘전문직 특성 살려 자원봉사 문화에 앞장선다.’ 동국대의료원 3개 병원 불교회와 사법연수원 34기 다라마법우회가 5일, 7일 각각 합천 해인사와 서울 조계사·서울노인복지센터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분야는 진

료와 법률상담, 제각각 ‘정진기’와 ‘법전’을 짊어 들었다. 동국대의료원 산하 경주병원, 포항병원, 경주한방병원 불교회는 양·한방 10개 진료과와 전문의, 간호사 등 55명의 의료진을 구성해 하안거 결제정진 중인 스님, 재가종무원 400여 명을 진료했다.

전문직 불자회 봉사 2팀

사법연수원 34기 다라마법우회는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벌였다. 20명씩 두 팀으로 나눠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투입했고, 법률상담은 2인 1조로 꾸려 상담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 또 활동기간도 이달 18일까지 보름 동안 늘려 잡는 등 내담자의 참여 기회

를 넓혔다. 이들 불자회가 왜 전문직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준비했을까?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다. 이는 그간의 일회성 단순 노력봉사 행태를 극복하고, 주특기를 신분 활용해 양질의 봉사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34기 다라마 법우회

김철우 기자

20명씩 두팀 나눠 법률상담



◇사법연수원 34기 다라마법우회원들이 내담자의 고통을 듣고 있다.

일터 불자들 신행 패턴 가지가지

경전공부

불교문화탐방

자원봉사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불자들. 이들은 신행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유형은 경전공부, 지역 불교문화 탐방,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경전공부는 외부 인사 초청 ‘법담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그 형태도 다르다. 특히 지역 불교문화 탐방은 현장 불교학습 활동은 기본이고,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삶의 현장에서 불심을 일깨우는 불자들. ‘일터 불심’이 꽃피우고 있는 신행생활을 들여다본다.

● ‘경전에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다’

건설교통부 불자회는 지난 2000년 창립이후 송도근 불자회장의 지도 하에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다. 또 과천 정부청사 5개 부처 불자연합회 결성을 주도, 매주 한 차례 보광사에서 <금강경> 독경을 이끄는 등 경전공부에서만큼은 웅망한 불교 학회 수준과 맞먹는다. 국내 20개 금융기관 불교회 창립에 모태가 된 한국은행 불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불교회는 매주 <법화경>, <불교경전입문> 등의 교리강좌를 열고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하는 등 경전 중심의 신행생활을 한다.

이처럼 이들 불자회가 경전공부에 전념하는

교문화재가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 불교 문화 기행으로 신행생활을 한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주 석굴암과 남산 등 자기 고장 불교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남 순천시청 불자회와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 경우, 지역 내 불교문화재를 보살피는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서울·경인교 사찰자연합회는 쉼터 방지와 ‘사찰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는 등 가람수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법륜불자교수회는 별도로 불교문화재위원회 두어 불자교수 회원의 전공을 접목한 불교문화연구회를 하고 있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강좌·사경법회

현장학습 및 불교문화재 지킴이 역할도

위문공연·무료관광·어르신 목욕 봉사

이유는 그간 일방적 전달 위주의 법문이 회원들의 교리이해도를 떨어뜨렸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법회의 중심은 바로 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체계적인 경전공부를 하는 불자회도 있다. 서울대 교·직원불자모임 ‘불이회’는 지난 1998년부터 외부 강사와 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주고 받는 ‘법담회’를 열고 있다. 진행 방식은 특정 주제를 발제자가 선정,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눈다.

● ‘지역 불교문화재 지킴이’

경북도청 불자회는 이 지역 문화재 중 불

●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를 느낀다’

경전공부, 지역 불교문화 탐방은 기본, 적극적인 자원봉사 실천으로 신행의 꽃을 피우는 불자회가 있다. 대한가수불자회는 지난 1990년 이후 전후방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양로원, 병원 환자 위문, 청소년 갱생보호원 등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았다. 특히 이 불자회는 현재 위문 공연 회수만 6백회가 넘을 만큼 왕성한 신행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운전자사찰자연합회 제주지역회는 무료 장애인 도일주 관광 시켜주기 운동을 벌여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는 물론, 주변 자연 보호 환경운동도 펼쳤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세무사불자회

“중생 개개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져 도탄에 빠진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직한 백성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견자소설경>

건강한 조세 문화의 정착을 부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납세의 의무 등 국민 된 도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자회. 부처님의 오묘한 대차비정신에 의지해 신심을 키워가는 조세전문가 신행단체. 우리 한국세무사불자회가 걸어가고 또 걸어가

왔습니다. 사실 그간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쭉날쭉한 회원들의 법회참석, 신입 회원의 가입 저조 등 한 때 불자회가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습니. 하지만 우리 불자회는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적은 인원이더라도 법회를 쉬지 않고 열고, 전문직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뿐인가? 불자님들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해 사회에 봉사하는 불자신행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2001년에는 사이버상에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http://www.buddhatax.com)를 개통해 불자네트즌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진리 구하며 중생들은 보살도의 길

국세청·공인회계사와 연합회 추진



◇한국세무사불자회원들이 지난 6월 15일 청도 운문사를 참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야 할 길입니다.

창립은 지난 98년 9월 불자세무사 120여명이 모여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서원했던 도반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먼저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면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해 덕 높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북돋았습니다. 또 봄가을에는 전국의 사찰을 찾아 불교문화를 흠뻑 만끽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신행활동은 현재 회원 수를 200여명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문직 불자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앞으로 우리 세무사불자회는 좀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불자회원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기적 보살행 실천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교리와 전불가도 체계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특히 동종 조세업계 불자회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국제청 보리회, 공인회계사불자회 등과 연합회 결성도 추진하고, 정기적인 합동법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는 진리를 구하며 중생들을 이끄는 보살도의 길을 한발 한발 내딛고 가겠습니다. 이런 신행활동은 현재 회원 수를 200여명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문직 불자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이선희 회장

우리 모임예선



재소자 포교 강화방안 모색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사진)는 5-6일 대전 광수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열고 재소자 포교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내달 중국성지순례 떠나

한국공무원자연합회(회장 노옥섭·사진)는 8월 9-15일 6박7일간 중국 성도 낙산대불, 아미산, 티베트 라사 시가체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관음포교원서 정기법회

서울 구로승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재·사진)는 16일 구로구 관음포교원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일명 스님에게 <42장경>강의를 들었다.



‘광주불교 자비산악회’ 출범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사진)는 6월 25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단위 산악회인 자비회를 ‘광주불교 자비산악회’로 변경, 독립 신행단체로 출범시켰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사진)는 13일 서해안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법당에 복사기 1대를 기증하고, 군합에서 선상법회를 봉행했다.



언론사불자련, 정기법회

언론사불자련(회장 김진평·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KBS 제1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인오 법사법문을 들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울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 수계식 1

우리절에서는 천심십일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패 영가님들, 그리고 유주무주교 훈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20일 [우리절 우담바라 개화 제 6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가수계식]을 봉행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신 분, 입시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상님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영가수계식]에 동참하십시오.

☞ 수계식 2

오는 11월 5일, 2004학년도 대입수능이 치러집니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당국의 교육정책혼선으로 인하여 입시자녀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조차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절에서는 수능을 100여일 앞둔 7월 27일 오전10시 입시자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수계식을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에 힘입어 아빠·엄마·자녀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수계공덕]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